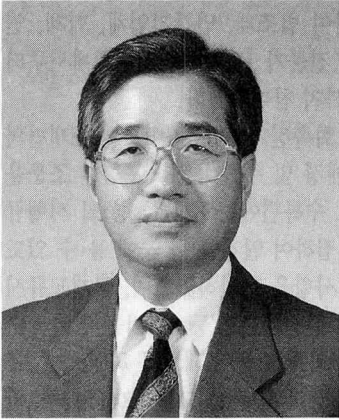


인터넷 시대의



세계는 지금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요즘 몰아닥친 인터넷의 열풍만 보아도 가히 짐작할 만하다. 각종 신문 잡지에 인터넷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까지 인터넷을 연결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캠페인도 일고 있다.

인터넷의 쾌속진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인터넷은 여러가지 장벽을 넘어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고 있고, 국제 PC통신망도 인터넷망과의 연결에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나의 시스템이 세계에 보급된 속도로서는 세계기록일 것이다.

우주에서의 정보전달 전쟁은 더욱 치열하다. 미국 모토로라사가 주도하여 세계의 휴대전화망을 구성하는 이리디움 계획, 빌 게이츠가 중심이 되어 840개나 되는 위성을 쏘아 올려 이동전화로부터 TV, 전화까지 전송하는 텔레테스크 계획, 유럽에서는 정지위성과 이동위성을 합쳐 약

70개의 위성을 띄우는 인마르샛 계획 등이 추진 중이다. 모두 웅대하고 독창적인 구상들이다.

이러한 통신과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미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즈니스의 혁명을 가져온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여러 매체들에 의해 피부에 와닿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장미빛 미래로 가는 길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미빛 미래를 꿈꿀때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열을 올리는 정보화 정책이 곧 우리의 생존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모든 자원을 경쟁요소로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산업을 바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베푸는 정보의 현란함과 풍부함에 같이 징을 올리고 장구를 치고 있을 수만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한 여름내 노래만 부르다 겨울을 맞는 벼랑이 풀이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물론 정보화사회로의 진군에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초고속통신망건설, 무궁화1, 2호 방송통신위성 발사 등, 최첨단 정보통신은 물론 고속데이터 전송 등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화 정책이 국가경쟁력 확보는 커녕, 선진국들의 잔치에만 이용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정보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정책은 아직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10, 20년 가량 뒤떨어져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도 크게 낮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와 개발노력도 부족한 편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해 육성 계획을 만들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집행은 늦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멀티미디어 응용 소프트웨어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일들

두번째로 이유를 들자면 우리의 관심이 정보전달 매체에만 편중되어 있어 정보 창조, 생성, 발상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자.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어도 어떤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것인가. 고속도로를 열심히 닦았는데, 그 위를 지나가는 차들이 전부 외제차들이라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다. 잘 닦여진 정보고속도로를 흘러다닌 다양한 정보상품의 개발에 얼마만한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면 문화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보역조현상도 우려된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여과되지 않은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흡수가 조금씩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 앞서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준비작업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상품의 창조, 생성, 발상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이어져야 정보화의 꽃이 만개할 2000년대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정신자세의 문제이다.

정보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통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세계는 한지붕으로 엮어진 또 하나의 공동된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의 정보 매체는 쌍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보를 가공하고, 전달하는 정보서비스의 주체자도 사용자도 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건강한 토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 사용자 모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는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마인드>, <남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인드>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마인드>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용자와 제공자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스스로의 기본을 지키는 성숙한 마인드에 달려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과 동시에 다가오는 고도정보화 사회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생활 모든 면에 걸쳐 혁명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도 모든 면에 걸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부분도 미흡하지 않게,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다가오는 21세기는 훨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정보산업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싶다. ◆

교보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장규